

■ 연꽃마을 창립20주년

# “한 일보다 할 일 더 많다”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한 방편으로 무료 노인요양원, 실버노인요양원, 전문노인요양원 등을 설립 운영하고 각종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사업소 등을 위탁 경영해온 연꽃마을이 사장 각현이 20주년을 맞았다.

연꽃마을이 법인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6월 14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연꽃마을 예술제’를 개최했다.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법인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3세대가 함께하는 예술제를 개최하게 된 사실로 기쁘다”며 “지역과 세대를 불문하고 한마음으로 연꽃마을의 20주년을 축하하는 이 자리를 계기로 연꽃마을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꽃마을 예술제에서는 연꽃마을의 40여 산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대화중합사회복지관, 용인노인복지관,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평택남부노인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파라밀요양원, 용인노인요양



6월 14일 열린 연꽃마을 예술제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연꽃마을 예술제에서는 연꽃마을 산하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에서 22개 팀이 대회에 참가해 경연을 벌였다. 행사에서 각현 스님은 “문화·예술분야의 노인축제가 자리매김해 노인들이 삶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원, 송파노인복지센터, 아현노인복지센터 등 총 13가관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100여 점의 작품들도 전시·판매됐다.

이날 행사에서 작품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금 전액은 연꽃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님 간병비(요양비)

지원사업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연꽃마을은 2010년 1월부터 스님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스님 가족들에게도 간병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파라밀병원과 파라밀요양원에서 다섯 명의 스님과 스님 가족 일곱 명이 요양하고 있다. 각현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에 매

진한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출가했지만 오히려 속가의 가족들이 노스님들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 스님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연꽃마을은 연꽃마을 예술제를 비롯해 10일 ‘전국 노인 백일장대회’, 20일 ‘제3회 장애노인을 위한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개최했고 9월 7일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 10월 ‘20년사 반포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각현 스님은 2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노인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문화·예술 분야 등 창조적인 활동을 하며 삶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40여 개의 산하단체 중 파라밀요양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99.6점으로(전국평균 76.9)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평택시노인전문요양원, 용인노인전문요양원도 A등급을 받았다. 200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방배노인복지관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뽑혔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 박창호 관장은 “20년간 역동적으로 도전한 결과 연꽃마을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계에서 우뚝 섰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연꽃마을과 함께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각현 스님은 “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타종교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z211@buddhapia.com

## “커피와 함께 제2의 삶 산다”

### 카페 ‘삼가연정’ 변정숙 바리스타

카페 삼가연정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실버 카페’이다. 삼가연정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책·사람·차)의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009년 8월 18일 문을 연 삼가연정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책과 사람 그리고 차가 있는 문화공간이자 고행화 사회를 맞아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르신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커피향이 솔솔 풍기는 6월 14일 카페테리아의 오후. 향긋한 커피냄새와 클래식 음악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삼가연정에서 할머니 바리스타를 만났다. 어르신 하면 힘없고, 약한, 외로운 등의 단어들

이 연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삼가연정에서 만난 바리스타 어르신들은 얼굴에 모두 ‘웃음꽃’이 피어있다. 변정숙씨(57·사진)는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의 바리스타 교육생 1기이다. 현재 삼가연정에서 일하는 열여섯 명의 실버 바리스타는 대다수가 60대 인데 50대인 변정숙씨는 여기서 만큼은 막내라고 한다.

결혼해서 아이들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던 변정숙씨는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한다. 게다가 고행화 등의 지병이 찾아와 건강도 악화됐다. 그때 친구를 따라 봉사활동을 다니게 됐고 우연히 서울노인복지센터의 노인일자리 교육에 참가했다.

“제가 바리스타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 커피 종류도 많은 데다 모두 이탈리아다 보니 그 이름 외우는 것부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교육을 듣다 보니 재미가 붙더라고요.”

변정숙씨는 커피이름은 헛갈렸지만 배우면서 그녀만의 공부법을 터득하게 됐다. 그것은 집에 가서 노트 필기를 보며 그날 실습한 것을 머릿속으로 자주 그려보는 것이다.

그렇게 한 달간의 교육을 끝냈고 삼가연정이 문을 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변정숙씨는 바리스타라는 이름을 잘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제가 만든 커피가 맛있다고 하면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게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자주 뒤돌아서 있었는데 말이예요.”

변정숙씨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건강과 자신감을 찾았고 표정도 바뀌었다.

“저는 지금까지 가족 핑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리스타를 하고 있으니 세련되지는 기본이네요.”

변정숙씨는 40년간 젊에 다니고 있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변씨는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 밖에 할 것이 없다.”며 밝게 웃었다.

박선주 기자



## 동대부여중 법당 중건 회향

### 개교 80주년 맞아

한국 중등 불교 교육의 효시이자 여성 교육의 산실로 출발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교장 김태원, 이하 동대부여중)가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았다.

이에 동대부여중은 6월 18일 교내 법당 불사 회향식 및 개교기념식 및 거행했다.

동대부여중은 1930년 조선불교청년동맹, 쌍계사, 다보사 등 불교계의 후원으로 명성학원이란 이름으로 종로구 수송동 태고사지리의 조계사(산)에 설립됐다. 명성학원의 초대 교장인 최범술 스님은 일본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설립을 추진했다.

동대부여중은 종합학교인만큼 종교교과목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김형중 교법사는 “다종교사회에서



동대부여중의 김형중 교법사와 김태원 교장이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학생들과 함께 제등행렬을 하고 있다. 동대부여중은 개교 80주년을 맞아 6월 18일 개교기념식을 열고 종합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종교교육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불교 관련 문화·시·문화제·고승들의 사상 등을 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주 교법사는 “입학할 때에는 비 불자 학생들도 있지만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수제 받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2008년 부인한 김태원 교장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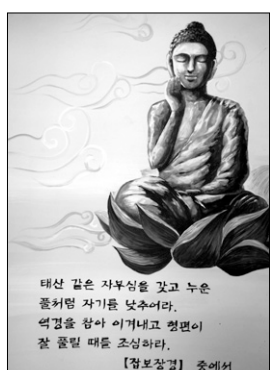
님은 다문화·결혼가정 학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이라는 책임감으로 발로 뛰었다. 그렇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성동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35억 원에 달한다.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동대부여중은 성동교육청 내 선두그룹 학교로 평가받고 있다.

박선주 기자

## 제13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가 불교신문사와 공동주최한 제13회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에서 총 55명의 학생들이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고 6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사경 공모전은 3월 10일~5월 30일 전국의 사경, 학교에서 실시해 1차 우수작품으로 350건이 응모됐다. 이 중 심사(6월 3일)를 통해 대상 2점과, 최우수상(동국대학교 총장상) 2점, 우수상(포교원장·파라미타총재·불교신문사상) 6점, 장려상(파라미타회장 상) 10점, 특선(한국의정소년협회 회장 상) 10점 외에 장려상(파라미타 회장 상) 25점 등을 선정했다.



사경공모전에서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한 광동고 최이경 학생의 작품상.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최이경(남양주 광동고 2년) 불촉위원장에 의해 현(동대부여중 2년)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 한국사경연구회 회장 김경호씨, 중앙무형문화재 제48호(단정장) 원미희씨를 심사위원으로 추대해 전체적인 작품성과 신행·사경·불화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수상은 6월 24일 오후 4시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상한 작품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전시된다.

박선주 기자

## 제1회 웰다잉 문화제

### ‘아름다운 삶의 향연’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이 6월 22일 오후 7시 반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회 웰다잉(well-dying) 문화제 ‘아름다운 삶의 향연’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

태고종 영산재 시연과 함께 황병기 명인의 침향무 가야금 연주와 박애리 명창의 판소리,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아리랑 환상곡 등이 연주된다.

불교여성개발원 하현정 팀장은 “웰다잉 운동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02)722-2101-2

박선주 기자

## 2010년도 백중맞이 조상령 및 유산아천도 합동49재

지장경에서 부처님은 살아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영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꿈이다, 잠결에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됨은 이는 모두 다 한 시나 열시이나, 백시, 천시의 과거세의 부모, 형제자매,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력으로 구해줄 곳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속세 혈육에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영가를 위해 기도하고 재를 지내고 부처님 경(말씀)을 읽어 주면 영가는 이승에의 집착을 버리고 극락왕생을 하고, 반면 살아있는 사람은 더 이상 돌아가신 분에게 괴달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심원사에서는 조상령 및 유산아 천도 합동 49재를 아래 일정과 같이 봉행하오니 두루 동참, 선망조상님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시고 그 인연공덕으로 다감생의 업장이 모두 소멸 되시기 바랍니다.

### ■ 법회봉행일정

- 입재 : 7월 4일(음력 5월 23일) 일요일 10시
- 초재 : 7월 11일(음력 5월 30일) 일요일 10시
- 2 재 : 7월 18일(음력 6월 7일) 일요일 10시
- 3 재 : 7월 25일(음력 6월 14일) 일요일 10시
- 4 재 : 8월 1일(음력 6월 21일) 일요일 10시
- 5 재 : 8월 8일(음력 6월 28일)일요일 10시 (5재에는 토요일 철야기도 후 새벽 2시 계사에 구명식사를 합니다)
- 6 재 : 8월 15일(음력 7월 6일) 일요일 10시
- 회향 : 8월 22일(음력 7월 13일)일요일 10시
- 백중기도 : 8월 24일(음력 7월 15일)화요일 10시

- ◆ 49재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부터 철야 기도 합니다.
- ◆ 기도동참금 : 10만원. 농협 : 238-01-199000 / 국민은행 : 324501-04-042961 / 예금주 심원사
- ◆ 차 량 문의 : 하나관광 장 목 기사 : 011-263-7809 홍보실 : 019-9406-4406(왕복 10,000원) 행사기간 중 조계사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 오전 7시 심원사행 차량 출발합니다. 반드시 미리 예약바랍니다.
- ◆ 자세한 것은 중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리도 72번지 전화 : 033)455-5882, 455-3468 팩스 : 033)455-0419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합장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방 -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